

정권교체와 발전노조의 비전

촛불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재벌 친화적인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이며,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한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에너지산업 역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력발전 5개사로 구성된 발전노조, 그 비전에 대해 몇 편에 걸쳐 나누어 게재하려고 합니다.

① 전력산업의 전망

정부는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정지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시행되어지고 있다. 우리 발전노조는 이 조치에 대하여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많은 국민들은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는 에너지 산업이 경제발전 논리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시기를 맞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2016년 11월)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국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을 UN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기후변화, 탄소저감, 미세먼지 관련 정책 내용은 피상적이며, 정책 목표 역시 불분명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이는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가시화되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전반의 구조적·공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계획은 공급안정성만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를, 즉 석탄과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MIX 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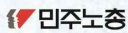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며, 또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에너지공기업 전반의 운영 목표 및 운영 원리 역시 변해야 한다.

첫째, 민영화를 위해 분할·경쟁하고 있는 전력공기업을 서서히 민영화하여 침몰시킬 것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시장 자체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인 **전력·가스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전면 중단**,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가스발전을 '정책성 전원'으로 기저화하여 가스발전의 일정 설비를 우선 급전순위로 지정하여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가 기저발전으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 민간 가스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5개 발전공기업의 LNG 연료비를 절감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발전회사 분할은 연료구입 경쟁을 통해 석탄 구입비용을 상승시켰고, 6개사 분할에 따라 경영진과 스태프 조직이 증가하여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등 각종 비효율을 양산했다. 또한 지난 16년 동안 민영화·시장화를 전제로 한 에너지 공기업간 경쟁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전력산업 전환의 실효성, 이를 위한 비용 등 제반 측면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전력산업의 통합**을 주장한다. 이는 또한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공적으로 충당하게 할 것이다.

발전노조는 한곳의 발전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통합된 전력회사로의 이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딸이 입던 늘어난 티셔츠만 입던 내 몸에 예쁜 블라우스도 입혀볼 수 있겠지"

"중2 아들 컴퓨터도 성능 좋은 걸로 하나 사주면 멋진 아빠라고 하겠지"

"500원 더 싼 밥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야"

"편의점 계산대가 아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지"

"생계가 무서워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거야"

"이제야 통장에 한 푼 두 푼 모이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겠지"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 삶에 나중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으로 세상이 들썩들썩!

- 미조직 노동자 : 최저임금 6,470원어치만 일한다! 6.30. 3시 STOP!
- 아르바이트 노동자 : 6월 마지막주 최임 1만원 서울도심 농성, 30일 최대 집중
- 대학생 : 농활기간, 농민들과 함께 상경